“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보내세요”

광주시·전남도 종합대책 추진
시내버스 확대·특별방역 시행
의료공백 최소화·재난 대응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7개반 239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묘·의료, 교통, 환경·청소, 시민·안전, 소방, 급수 등을 집중 관리한다.

연휴기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 오는 20~24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정상 운영되는 망월·영락묘지 성묘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 공무원, 경찰과 함께 모범운전자회 100여명이 교통정리와 주·정차를 지도한다. 또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 주변에서도 모범운전자회 150여명이 교통지도 활동을 펼친다.

명절 연휴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내버스 운행도 확대한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는 하루 28회 증차 운행하고, ‘지원15번’과 ‘용전86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하거나 연장하는 등 노선을 조정해 성묘객의 이동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질서 유지·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는 강화한다. 관내 공영주차장 300여곳은 무료 개방하고, 오는 시가지 청결 활동, 연휴 기간 수거일 조정 등을 통해 쓰레기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설 연휴에는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 958명이 격일로 특별근무를 하며 시가지를 청소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자치구가 보유한 살수 차량과 진공흡입차량 등 노면 청소차량 16대도 집중 투입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응급의료기관 20곳과 응급실 운영 신고기관 4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로 연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자치구 보건소를 포함한 선별진료소 9곳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을 지정해 진료와 의약품 구입에도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11개 분야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도는 연휴 기간 도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314곳, 보건기관 339곳, 약국 387곳 등 총 1,040곳에서 진료를 계속한다.

목포한국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49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도 모두 24시간 운영하며 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해 22개 시군에 선별진료소 55곳도 운영한다. 섬 등 취약지역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가 가능한 닥터헬기도 정상 운영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료 대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연휴 기간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55곳을 운영한다. 방문객이 많은 함평 천지휴게소와 장성 백양사 휴게소 하행선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고위험군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지원한다.

재택치료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진료기관 151곳과 치료제 담당 약국 104곳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시군 건강모니터링전담반이 1일 1~2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하도록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한다.

귀성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 7개 노선의 시외버스를 15회 증차 운행하고, 시내·농어촌 버스는 이용 수요에 맞춰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철도는 호남선 4회, 전라선 6회를 증편해 운행한다.

/길용현·임채민 기자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해와 통합 5·18정신 이어가겠다”

국힘, 설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
민주묘지 참배 이어 현장비대위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 명절을 앞둔 19일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민심 잡기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정 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화해와 통합 5·18정신을 국민의힘이 이어가겠습니다’ 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참배 후 “대한민국을 받치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그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18 정신은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라며 “며칠 전 5·18 핵심 회원들이 국립현충원 찾아서 5·18 당시 광주에서 순직한 군경 묘역을 참배했다. 43년의 비극을 끊어내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열린 현장 비대위회의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국민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지 8일 만인 지난해 5·18 때 국민의힘 전원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과 함께 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이라며 “첨단 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 지도부의 노력과 협조로 2023년 광주 예산은 3조3,081억원이 반영됐다. 전년 대비 926억원 (늘어난)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나주 재래시장을 방문해 설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벌였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남구에 “인사교류 전면 중단”

‘3급 공무원 자체 승진’을 두고 광주시와 남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자체 승진을 의결한 남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협약 위반’이라며 인사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 5개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소속 국장급(3급)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해왔다. 이들은 1년가량 해당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시청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남구는 지난 16일 인사예고를 통해 이현 자치행정국장의 3급 승진인사를 직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을 3급으로 승진의결했다.

이와 관련, 문영훈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위반에 따라 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시·도 기획조정실장에 배일권·장헌범 임명

배일권

장헌범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기획조정실장에 배일권 전 국민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과 장헌범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지원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배 실장은 4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9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자원관리과장과 자전거정책과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등을 지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힘이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전임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나주 출신인 신임 장 실장은 광주 광덕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제3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입문해 화순군 내무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팀장,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창조과학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과장, 혁신기획과장,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을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남도는 장 실장이 풍부한 행정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남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비확보, 세계적 관광벨트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용현·임채민 기자